

광주시,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마다 소송전...행정력 낭비

어등산 관광단지 이어 4조규모 평동개발사업도 장기표류 우려 신규 대형 투자사업 사전 점검 시스템 강화 등 대책마련 시급

광주시가 대형민간투자 사업 관련해 잇따라 패소 하면서 사업 차질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업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민간투자 분야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성급하게 접근한 데다, 일부 사업은 부처간 사전 협의나 조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선 민선 7기 들어 각종 소송전에 대비한다며 영입한 4급 법무담당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30일 4조원 규모의 평동 준공사업지구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시의 처분이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갑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방향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법원의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주민 300여명의 민원에 따라 개발행위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해 왔는데, 이번 판결로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 공익적 측면에서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에 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도 소송을 앞두고 있다. 2년 여간 광주시와 협상을 벌여온 서진건설측은 여전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 결렬을 통보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진건설측은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민간이 아닌 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공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전으로 이어져 법원이 또 다시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준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도 시가 서진건설의 우선 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광주 추역의 명사로 30년 가까이 방치된 지산유원지 개발 사업도 연이은 소송전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원이 시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업 시행자 지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에 사업은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시는 사업 시행자 재지정 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지만, 사업 시행자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산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업체측은 "소송과는 별개로 일단 오는 11월 개장 목표로 높이공원 부지 내에 바이킹 등 놀이기구를 기존과 같은 규모로 배치·운영하기 위해 관할 동구청과 최종 협의 단계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벨 화학상에 독일 리스트·미국 맥밀런

'비대칭 유기촉매 반응' 분자 만드는 정밀 도구 개발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에 독일 베나민 리스트와 미국 데이비드 맥밀런이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화학상에 베나민 리스트, 데이비드 맥밀런 2인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비대칭 유기촉매 반응"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드는 정밀한 도구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상금은 1000만 크로나(약 13억5000만원)로, 공동 수상자는 균일하게 나눠 받는다.

한편 지난 4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이 발표됐으며 7일 문학상, 8일 평화상, 11일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



베나민 리스트

데이비드 맥밀런

이다. 또한 올해 노벨상 시상식은 코로나 팬데믹 탓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연말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외 입국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6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격리면제서를 가진 사람은 오는 7일부터 국내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시작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연합뉴스

광주시민예술인재 아카데미

17일 개강 수강생 50명 모집

광주시는 "오는 17일부터 전일빌딩245다목적강당에서 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을 돕는 '광주시민예술인재아카데미'를 개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교육원 광주캠퍼스 개원을 맞춰 지역 내 예술영재를 발굴하고 시민 예술 애호가들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예술향유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국내 최고의 예술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21세기 인공지능시대 예술의 의미와 역할, 전문 예술인으로 살아가기 등 예술·철학적 질문들을 접점한다. 특히 미래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과 꿈을 키워주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구성돼 있어 예술영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아카데미로, 전문 예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강사 겸 멘토로 나서는 예술인들은 한국 공연예술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를 비롯한 박재홍 발레협회 회장 등이다.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발레·국악·음악·미술 등 4개 분야, 총 10강으로 진행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소감을 나누고 개인의 역량을 선보이는 발표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생은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부 30명과 일반부 20명 등 총 50명을 선발하며,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은 유튜브 생중계 채널 '2021광주시민예술인재아카데미'로 강의를 접할 수 있다.

일반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생 참가 모집과 일정 및 강사진 등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UqpAptQw-hp5IfWpFO2APA)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민관협업 '국산김치 사용 표시제' 순항

4499개소 인증 목표 90% 달성 '전국 최다'...김치 수입 감소 견인

전남도가 지난 4월 전국 첫 시행한 민·관 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인증실적이 올해 목표한 5000개소의 90%를 달성해 순항하는 등 국내 김치 수입량 감소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시행하기 전 도내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업체는 1개 음식점에 불과했으나,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 4499개소로 크게 늘었다. 이는 '국산김치 사용표시제'를 인증받은 전국 총 9862개 업체의 46%로 전국 최다 실적이다.

시·군별로 여수가 가장 많은 489개소를 기록했으며, 순천 438개소, 광양 369개소, 목포 330개소, 해남 297개소, 나주 281개소, 무안 240개소, 신안 220개소 등이다. 유행별로 음식점이 3026개소로 가장 많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1308개소, 사군 등 공공기관, 기업체, 병원 등 단체급식소 158개소, 휴게소 7개소 등이다.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업체 수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220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무려 8배 증가한

9862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남의 민·관 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산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시·도별로 충남 990개소, 경기 818개소, 서울 629개소, 광주 422개소, 전북 379개소, 경북 303개소 등이다.

이처럼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등 김치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중국발 알몸 배추질 입 동영상 보도 이후 수입산 김치 기피 현상까지 맞물려 김치 수입량은 크게 줄었다. 실제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김치 수입량은 14만1627t(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4685t(960억원)보다 8.4% 줄었다.

전남도가 추진 중인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 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도와 국산김치사용표시위원회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올해 목표 5천 개소를 달성해 국산김치 사용표시제를 범국민 김치 소비 촉진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코로나 확산세 주춤...안심하긴 일러

전국 2000명대 연휴 여파 지속

광주·전남에서 모처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6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5114명을 기록했다. 직업소개소 행정명령 관련 2명, 타 지역 건설현장 관련 1명,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증상 검사자 3명 등이다.

전남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5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320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여수 3명, 나주·해남 각 1명이다. 전남은 추석 명절 이후 지난달 29일 일 확진자가 29명까지 치솟는 등 확산 양상이었으나, 이날 들어 1일 22명→2일 25명→3일 13명→4일 13명→5일 13명으로 안정세를 찾고 있다.

전국에서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028명 늘어 누적 32만3379명이 됐다. 전날 1575명보다 453명 늘면서 지난 3일(2085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는데, 개천절 대체휴무 등 사흘 연휴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역 발생이 2002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 발생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 685명, 경기 680명, 인천 130명 등 총 1495명(74.7%)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120명, 충남 68명, 대구 64명, 경북 55명, 부산·충북 각 38명, 대전·강원 각 31명, 전북 20명, 광주 16명, 전남 12명, 세종·제주 각 5명, 울산 4명 등 총 507명(25.3%)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임야,삽니다
지분환영. 010-6837-4700

처분하기 교환
힘든 부동산
하실 분. 010-3605-50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 (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5천 (용1억) 보1천 월1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2) 60평(전용) 4억5천 (용3억) 보2천 월200	장성담 (호) 2분,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 (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장성 IC. 5분
(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희,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010-6670-9800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전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합병 공고

본 회사는 2021년 10월 6일 총사원동의로 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금오도방풍테마촌에 흡수합병하여 본 농업회사법인은 해산하고 그 권리 의무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금오도방풍테마촌이 승계하기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제출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농업회사법인 금오도방풍테마촌 유한회사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대우윗길 47
공동대표이사 김유희, 박재성

산행안내

10월10일(일)
▲광주K산악회 10월10일(일) 울주군 영남알프스 신불산, 영축산, 파레스폭포&천황산, 재약산 산행, 영주체육관 05:30, 동아병원 05:35, 롯데백화점 05:40, 광주역 05:45, 문예후문 05:55, 비엔누차장 06:00 * 다 음카페 광주K산악회 ☎ 010-7794-6920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